



< 녹 취 문 >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류수자 (전 보험설계사, 현 가정주부)		
면담자	이혜숙	면담지원자	박인옥
면담일시	2025. 10. 11.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3층 동아리실
녹취문 작성자	이혜숙	회차	2회차

1. 시작멘트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류수자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이고, 장소는 학산문화원 3층 동아리실입니다. 면담 진행은 이혜숙이 하겠습니다.

2. 근황 (00:00:00~00:00:31)

면담자 : 인터뷰해 달라고 부탁 전화 처음 받았을 때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구술자 : 처음 받았을 때? 나이 먹었는데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을 잘할 수 있을까 우려가 생겼었지. 걱정이 생겼지.

나이 먹었는데 이제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말하는 어휘력도 이제 표현력이 부족해지고.

그런데 이렇게 늙은 나를 인터뷰하자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

3. 결혼해서 과수원을 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다 (00:00:31~00:11:10)

면담자 : 남편분이 동양화학에 언제쯤 입사하셨어요?

구술자 : 43세에 했어요. 충청도에서 우리는 과수원을 한, 1만 7천 평짜리 과수원을 했어요.

그래서 엄두도 안 나는데 제가. 저는 도외지서 살았고 충남 예산 읍내에서 살았고, 우리 남편은 시골 면 소재지에서 한 10Km 들어가는 산골짜기에서 살았어요.

처음에 시집을 가니까 못 살겠더라고. 도외지서 문 앞에만 나가면 버스. 어느 버스든지 다 탈 수 있고 다 편한 세상에, 거기 가니까 택시도 잡을 수 없고 버스도 탈 수 없고 1시간씩 걸어 나와야 되니까. 그 애들 초등학교를 넣는데 애들이 갔다 오면 지쳐서 쓰러져.

면담자 : 너무 머니까 많이 걸어요?

구술자 :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1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다가는 애들 교육도 안 되고 애들 고생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네. 우리 형부가 서울특별시장 했어요.

안보현 시장. 그래서 혜화동에 막 사택으로 갔지. 형부한테 그랬더니 왜 왔냐고 형부가 물어 보더라고.



그래서 날 보고 그치 지금 생각하면 애 젖 먹이는 애를 젖을 먹이다 말고 애도 안 데리고서는 하얀 한복을 입고 왔는데 젖이 다 흘러내린 거야.

우리 형부가 얼마나 쟁피했겠어. 그 사택에를 들어가려면 세 가운데를 통과를 해야 돼.

경비실을! 경비들이 아래 위로 쳐다보더라고. 이렇게 후줄근하고 께죄죄한 사람이

우리 서울 특별시장을 왜 만나러 왔냐고 아래 위로 쳐다보고.

무시하는 거 알아. 뭐 어떻게 창피해도 그냥 들어갔지.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깜짝 놀라 ‘너 웬일이니, 옷이 그게 뭐냐?’ 그래서 ‘아기 3개월 된 거 떼놓고 와서 그래 언니’ 그랬더니 ‘아 무리 그래도 애를 데리고 오지 그게 젖이 줄줄 새게 그게 한복을 입고 그러고 왔냐’ 고 언니가 창피하니까 그래서 형부를 1대 1로. 우리 형부네요.

누구 하면 1대 1로 안 만나요. 누구를 통해서 이중으로 듣지. 그런데 나는 1대 1로 형부가 충청도서 여까지 왔으니 1대1 면담한다고 그래도 우리 언니가 깜짝 놀래! 생전 보지도 못한 처제를 1대 1로 면담한다고 본인이 자청해서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형부가 거처하는 그 응접실로 갔어.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랬지.

남편이 서울법대 나오고 시아버지가 면장이고 과수원이고 그래서 부잣집인 줄 알고 시집 갔더니 너무 시골이라 애들 학교 교육도 못 시킬 것 같고 거기서 살면 도저히 발전이 없어서 그 시골을 벗어나려고 제가 형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 남편 취직 좀 시켜줘요.’

그랬더니 ‘이력서 가져왔느냐?’ 그래서 ‘안 가져왔다’고 그래서 내가 취직 부탁하는 사람이 이력서도 안 가져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니 나중에 본인을 데리고 오래 다시 한 번. 본인을 데리고 이력서 딱 써가지고 오래. 우리 남편이 글씨는 잘 써. 저 말주변은 없어도 그런 글씨는 잘 써 명필이야. 이제 이력서를 딱 써가지고 우리 남편 데리고서는 갖다 냈더니 이렇게 훌륭하게 서울대학교 법학과까지 나와가지고, 10년 동안 우리 처제 고생시키고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아주 한마디로 면박을 줬지. 남편한테! 우리 귀하게 큰. 난 이제 식모 두고 산 걸 우리 형부가 다 알잖아.

우리 집 안팎에 식모을 대대로 그냥 계속 식모 두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부잣집 딸을 고생시켰냐고, 시골 구석에 데리고 가서 고생시켰냐고 그러더니 어디로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저 그 면 소재지를 떠나고 싶어요. 그 고향도 떠나고 싶어요.

면담자 : 충남에서 떠나서 도시로요?

구술자 : 충남에서 저기 고향을 떠나서 서울이나 도외지로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와서 어디다 해주느냐고 형부가 난감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동양화학에 이회림 회장님한테 직접 1 대 1 면담을 하시는 거야.

면담자 : 원래 이제 두 분이 교류가 있는 분이셨구나? 그러면 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원래 아는 분들?

구술자 : 형부하고 회장님하고 어떻게 알았느냐면 군인 갔을 때 선후배 사이였다.

이회림 회장님이 상관이고 우리 형부가 그 바로 밑에 직속 부하였다.

그래서 아주 친하더라고. 남자들은 군인에서 유대관계가 굉장히 잘 맺어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회림 회장님한테 1 대 1로 전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감히 1 대 1로 전화를. 형부가 나를 고려할 준비도 안 하고, 1대 1로 전화를 하시더라고.



‘충청도에서 직장생활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이야. 회장님 한 자리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면은 자리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3일 안으로 물색을 해보고 연락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쪽에서 그러더라고.

면담자 :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전화다.

구술자 : 요새는 그런 거 부탁하면 큰일 나지. 더군다나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서 이거여 [손가
락으로 목 언저리를 가로그으시며] 그랬는데 그때는 그게 통했어.

면담자 : 그게 몇 년도예요. 진짜?

구술자 : 연도는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남편이 살았으면 87세인데 43세 때 우리 남편 43세였
을 때야

참석자2 : 몇 년생이시죠? 아버님이 몇 년생이시죠?

구술자 : 38년생. 38년생!

면담자 : 43세 그러면은 82년도네요.

구술자 : 82년도. 그럴 것 같네. 82년도! 그래가지고 그냥 이회림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3일
안에 해준다고 하더니 엄마 집에 오니까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서는 빨리 올라오라고 이력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충청도에서 또 인천까지
올라온 거야.

그래 인천에 자리가 있는데 서울엔 자리가 없다. ‘인천에 어떡냐?’ 그래서 아이고 ‘인천도 좋
다’고 하여튼 고향만 떠나면 되니까 그 시골만 면하면 되니까 나는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자
식들 교육 문제 그 시골구석에서 어떻게 애들 학교를 가르치느냐고 가는 시간도 1시간 걸리지
또 시골에서 과수원을 한다고 그래야 그렇게 이렇게 돈이 그때 당시에는 사과를 팔아서 이렇
게 생활하기가 힘들었어요.

암만 과수원이 넓어도 지금은 사과값도 비싸고 막 출하기를 올리면 금방 돈 오고 그랬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아주 농사짓기도 어렵고 판로가 어려우니까 사는
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형부한테 얘기했더니 형부가 그럼 ‘인천 어떡냐?’고 ‘아, 좋다고 그냥 뭐 고향만 떠나
면 되니까 인천이면 어떡냐!’ 그러고 인천 뭐 생소하게 생겨 들어보지도 못했던 지역인데 그
래서 와서 사택을 주니까 편안하게 살고 좋더라고.

면담자 : 당시에 자녀분이 그러면 몇 살, 몇 살, 몇 살이었어요?

구술자 : 그때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 초등학교 5학년, 그래고 이제 작은 애가

면담자 : 그럼 5년을 걸어서 학교를 다니다가 인천으로 온 거예요?

구술자 : 그리고 이제 작은 애가 3학년이었고, 또 하나는 학교 안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애들
둘이 갔다 오면 녹초가 되는 거야.

그 1학년짜리가 갔다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 1시간을 걸어가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인천으로
오니까 학익초등학교니까 그 동양화학 관사에서 학익초등학교 10분도 안 걸리지 바로 길만
건너면 되니까. 학익초등학교 애들이 ‘엄마 너무 좋아! 학교 다니기도 좋고 여긴 애들이 벌써



말하는 투가 틀려' 시골 애들은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말을 하고 욕을. 반은 욕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 애들도 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마 인천 오니까 욕도 안 하고 말도 크게 안 하고 조용조용하게 해서 내가 목소리 줄이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 큰딸이 그러더라고 목소리를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싸우는 것 같이 말하다가 그렇게 조용조용하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애들이 힘들었어. 처음에는!

면담자 : 남편분이 그러면 부서 어디로 들어가셨는지 기억나세요?

구술자 : 서무과.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법학과를 나왔으니까 서무과에서 법에 대한 거를 좀 일을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일어나는 법적인 문제는 우리 남편이 다 해결했지

면담자 : 그러면 회사에서도 그런 이제 회사 커지면은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인재였네요.

구술자 : 알게 모르게 일이 크고 작은 게 많이 일어나요. 회사가 사원들이 몇백 명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우리 남편이 그래도 많이 그걸 해결하고 다니니까 회장이 참 좋아하시더라고.

머리 하나 좋으니까. 머리 머리 하나!

참석자 2 :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구술자 : 신은식. 신은식.

면담자 : 두 분 다 성이 되게 좀 특별하신 성이다.

구술자 : 조용한 성격이야.

면담자 : 흔한 성이 아니잖아요. 신씨도 그렇고, 류씨도 그렇고요.

구술자 : 특이한 우리는 버들 류자, 유관순의 류

면담자 : 저희 큰 올케 분도 류 씨거든요.

구술자 : 유 씨가 버들 류자, 맑을 류자, 무리 류, 요 세 가지야. 그런데 우리는 버들 류 유관순 후에.

4. 고향을 떠나 남편과 인천에 정착하고 맞벌이를 하다 (00:00:37~00:31:01)

면담자 : 그러면 남편분이 서무과에서 82년도에 입사하셔서 한 그때 한 3~ 4년 근무하셨다고 하셨죠? 남편분이 3~4년 근무하셨다고 했죠? 사시는 동안 그때 왜 사택에서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도 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구술자 : 사택에서 일어났던 일?

면담자 : 그러니까 처음에 사택 들어가는 일 얘기부터 부탁드립니다.

구술자 : 이제 제가 충청도에 사니까 여기 인천에서는 시골 떼기지. 한마디로 시골 떼기라고 거 사택에 그 사람들 들어오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사택에, 사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저



를 한 단계 내려 뭉겨서 깔보고 쳐다보더라고 저를

면담자 : 시골에서 왔으니까?

구술자 : 시골서 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 깔보냐? 두고 보자! 나 너한테 찔릴 거 하나도 없어. 그러고서는 이제 기다렸지. 그랬더니 제일 서운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애들이 삼남매여.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올 때도 그렇고 전부 충청도에서 올라왔으니까 그 사택에 있는 사람들 두 가구만 왔다 갔다 하지. 딴 데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택 친구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사택이 여기는 동양화학 용접하시는 일반 사원이 살고 이쪽에서는 기사님 버스 기사님이 살았어. 근데 그 버스 기사님도 참 좋았고 또 그 부인도 참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집은 사택이라도 뜨듯한 물이 안 나와, 근데 그 사택은 동양화학에서 그 물을 발전기 하고 남은 폐수를 갖다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가지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했어. 그래서 그 사무과 과장님이 우리 집은 뜨거운 물 안 나오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그 게 개인 재산이 아니고 우리 동양화학 재산이니까 마음대로 애들 목욕도 시키고 빨래도 하세요.’ 그렇게 시켜서 가서 거기 창고는 이제 문을 항상 오픈하는 상태고 그 살림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시끄럽게 애들 목욕을 시켜도 살림집 안에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데 그 기사 부인은 그냥 후리하게 그렇게 내줬는데 이쪽에서 사는 사람이 공원 부인이 날 보고 하는 소리가 그래 ‘이거를 왜 마음대로 쓰느냐?’ 이거야 자기 허락 없이 그래서 내가 ‘영미 엄마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그랬어. ‘당연히 받아야죠.’ ‘이게 영미네 사유재산입니까?’ 내가 물어봤어. 이게 분명히 이게 동양화학 사택이잖아요. 그리고 동양화학 공유저기 물건인데 왜 개인이 저기를 하느냐 난 이거 서무과장님한테 허락받고 여기 사용하는 거다 그랬더니 아니래, 제 허락을 받아야 된대. 안 되겠어. 무식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자기 말만 막 하니까 그래서

면담자 : 텃새 부리셨구나.

구술자 : 텃새 맞아. 한마디로 텃새를 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양 서무과장님을 쫓아갔어. 거기서 먼저 사시던 분이 그거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저희 집은 물도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거기는 뚜렷한 물이 개인 게 아니고 동양화학 공유 재산인데 개인이 자기 재산 같이 행세를 하니 사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저랑 같이 그 집에 가서 설득을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인상을 쓰시더니 나 손을 잡고 내려가시더라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 그래가지고 보는 앞에서 이분이 목욕을, 애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을 하건 빨래를 하건 이건 동양화학 물건이다. 당신 개인 재산이 아니니까 동양화학 재산이니까 마음대로 쓰시게 터치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뒤부터 크게 소리, 우리가 빨래를 하건, 애들 목욕을 시키건 우리 집엔 찬물 나오니까 애들 목욕을 못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목욕도 시키고 빨래도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했어. 그래서

면담자 : 그때는 그러면은 빨래도 손빨래하신 거겠네요.

구술자 : 빨래 세탁기가 없으니까 다 손빨래했잖아. 지금 같으면 세탁기로 하니까 편한데 옛날에 세탁기도 없으니까 아주 손빨래하다가 내가 그 동양화학에서 이제 우리 남편이 버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하기가 어렵더라고. 애들 중고등학교 가르켜야지, 돈이 좀 많이 들어가. 옛날에는 학원비 들어가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장을 다녀야지 안 되겠다. 직장을 어디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유리 공장을 다니라고 그러더라고. 한 번 가봤더니 도저히 못 하겠어. 나는 아무리 직장일 한다 해도 삼강 유리를 갔는데 못하겠어 나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는 이런 일을 안 해봐서 못하겠다. 그래갖고 있는데 누가 그래 삼성생명 시험 좀 봐달래, 날 보고. 학벌이 어디 있냐고 처음에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시골 떼기가 고등학교밖에 더 나왔냐고 그랬더니 시골에세 그 나이에 고등학교 나오면 잘 나온 거라고. 그럼 시험 좀 봐달라고. 그래서 시험 봤더니 5명, 그 동네 사람이 5명인가 갔네. 5명이 다 떨어지고 나만 합격을 한 거야.

구술자 : 나는 안 다니고 시험만 봐주기로 하고 4명은 다니기로 하고 합격하면 다니기로 약속했고, 나는 시험만 봐주고 안 다닌다고 우리 남편 보고 얘기했더니 보험회사 다니면 바람 난다고 안 된대.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보험회사 다니면 바람 나서 안 된대.

나같이 순진한 사람 금방 꼬임에 넘어가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나 세상 가운데 갖다 놓고 나 바람 피울 때까지만 당신 살아. 난 이때까지 연애 한 번 안 해보고 당신한테 시집 온 사람이고 연애도 본래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연애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시험 봐서 됐는데, 교육 좀 3개월 받아달래 또 그래서 이제

면담자 : 잠깐만! 교육을 안 받고 시험을 보셨는데 붙으신거예요?

구술자 : 예. 아니 시험을 일주일 동안 시험지를 주더라고. 예상 문제를!

면담자 : 예상 문제 공부하셔서 그냥 암기하셔서 보신 거예요?

구술자 : 탄 사람은 다녔는데 나는 못 다니게 해서 거기 가서 보험회사 가서 그거를 교육을 못 받고 나 혼자 그냥 이 용지 가지고 혼자 공부한 거야.

탄 사람하고 보험회사 가서 다 했는데 우리 남편이 반대하니까 매일 어떻게 출근을 해. 그 사택에서 회사 가까운 데서 사니까 수시로 오는데 나 없으면 들키니까 안 돼서 그냥 혼자 집에서 맨날 이거 몰래 남편 몰래 해가지고 네 사람은 떨어지고 나는 합격을 했네.

그러니까 또 교육 받아달라고 해서 교육받았지.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할 일이 없는데 이거 보험회사나 다녀야겠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펄펄 뛰는 거야.

보험회사 다니면 바람 나고, 행실이 안 좋다는데 하필이면 왜 거길 가느냐! 고 그래서 나 바람 날 때까지만 당신 살아 내가 그랬지.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데 딱 이제 그 이웃집을 놀러 갔어.

내가 놀러 가 가지고 아는 사람은 사택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그 동양화학 안 다니는 집을 하나 놀러 갔어.

내가 그랬더니 '왜 왔느냐?' 그래서 나 여기 처음 왔는데 '나 보험회사 시험을 봤다 그랬는데 나 건수를 해야하는데 나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 나한테 그냥 한 달에 2만 원씩 들어가는 보험 하나 들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나 그러잖아도 적금 하나 들려고 그랬다.'고 30만 원짜리를 해주는데 나 2만 원, 2만 원짜리 하나 건수 올리려고 그랬는데 30만 원짜리 적금을 자기가 적금 들고 싶은데 대한생명에다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남편이랑 그 형제들이 그런데 이렇게 왔으니 삼성생명에다 해준다고 그래서 내게다 30만 원짜리 해줬어.

그래 건수 올렸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또 그 옆에 사는 사람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3천만 원을 탔대.

그래서 그걸 대한생명 여자가 자기 회사에다 넣으라고 그럼 수당을 많이 준다고 그랬대.



그래서 '수당을 얼마 주느냐?' 하니까 30만 원 준다고 그랬대.

내가 50만 원 줄게. 나한테 넣으라고 내가 수당 안 먹어도 건수만 올리면 나중에 건수 올리는 대로 월급이 나오거든.

그런데 이제 그거 이 수당을 먹으면 이중으로 거기 수수료 내가 또 먹고 월급은 월급대로 먹고 그러니까 한 2~30만 원을 더 타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런데 난 그걸 안 하고 그냥 건수만 올리고 월급에 그냥 탈 수 있게만 했지. 그랬더니 어마 소문이 난 거야.

예서 제서 류수자한테 그 돈 목돈 넣으면은 프로를 많이 해주고 수당도 안 먹고 다 자기한테 준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 사람이 갖다 주고, 저 사람이 막 돈을 직접 맡기는 거야.

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그 옛날에 김용균 국장님이라고 삼성생명의 유명한 국장님이 계셨어.

국장님이 이렇게 시골 분이 오셔서 한마디로 시골 떼기가 아무것도 못 할 줄 아는 시골 떼기가 와가지고 그렇게 막 금융형, 하기 힘든 금융형 정기적금 금융형은 그 보험회사 본사에서 한 달에 얼마씩 하라는 저기가 떨어져요.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그걸 꼭 해야 돼. 국장이. 그런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옛날 당시에 뭐 그렇게 돈이 목돈이 많았냐고 퇴직금 타봤자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랬더니 내가 막 그냥 목돈을 막 갖다 집어넣고 구치소 서무과장 하신 분이 또 연금을 탔는데 퇴직금을 탔는데 5천만 원을 탔는데 2천만 원은 삼성에다 넣고 3천만 원은 대한생명에다 넣기로 약속을 했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학익 교회를 다녔어. 학익 교회 다니시는 분이 대한생명을 다니니까 그 부인이 대한생명에다 넣기로 약속했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삼성이 높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사모님하고 과장님 계신 데서 남자하고만 이렇게 대화하면 안 돼. 여자를 끼어야지. 몰래 하면 안 되더라고 결국은 들통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인하고 남편하고 한 자리 있을 때 찾아가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좀 선물을 사 가지고 간 것 같아.

내가 귀한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교회 집사님이니까 머리가 트이셨잖아.

교회 다니시고 집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아유 그러면은 대한생명에다는 천만 원만 넣고, 여기다 다 밀어주자고 오히려 부인이 나한테 다 밀어주래.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부인 덕분에 내가 또 건수를 또 크게 올렸잖아.

그때부터는 국장이 그 금융형만 하려면 나를 자가용을 내놓고 해오라고 아니 국장님 저 없어요. 이제 다 해 먹을 거 다 해 먹어서 없어요. 그 아니에요.

차 내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종일 쓰셔.

면담자 : 근데 옛날에는 주변에 이렇게 누가 하나 하면 금방 입소문이 퍼지잖아요.

구술자 : 맞아요. 그리고

면담자 : 소개해 주고, 소개해 주고.

구술자 : 왜 이제 그게 입소문이 퍼지느냐면은 나 같은 생활 설계사가 자기한테 먹는 수당을 적게 먹고 그 사람한테 그 돈 넣는 사람한테 수당까지 없어서 프로테이지를 높게 해주면은 그게 입소문이 나서 아, 류수자한테 가면 프로테이지가 높다.

그리고 수당도 안 먹고 다 자기를 준다. 소문이 나니까 예서 제서 막 돈이 막 굴러오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동네 사람들이 대여섯 명씩 앉아서 언니 빨리 와 우리 집으로! 그래 왜 그러면



‘아, 빨리 와.’

그래서 가면은 벌써 이 사람이 천만 원, 이 사람이 2천만 원 다 돈을 준비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나한테 청약서 쓰라고.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가만히 앉아서 다섯 여섯 명이 모여서 한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사람이 있어.
동네 사람 돈 있는 사람을 모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그 사람 몰래 내가 별도로 선물을 갖다 주지 아무도 모르게. 고마우니까!

면담자 : 아, 그럼요. 오며 가며 해야지. 그럼 월급이 남편분보다 높게 받으시기도 했겠어요.
구술자 : 당연하지. 우리 남편 그때 첫 월급. 기억에 과장 월급이 아니 이제 첫 월급이 한 35만 원 탔어.

첫 월급이 그때 당시에 35만 원이고 나중에 과장 월급이 이제 한 50만 원 됐었어.
50만 원 될 때 나는 그때 얼마를 받느냐 월급을 한 달에 450도 탈 때 있었어.
그 금융형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금융형에서 450만 원 월급 탄 봉투를 내가 서랍에다 넣어놨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한데, 우리 시어머니가 참 똑똑하고 인물도 잘 생기고 괜찮은 분이예요.

그런데 그 버릇이 좀 나쁜 버릇이 있어. 며느리 방을 뒤지는 버릇이 있어.
그래서 나만 없으면은 장롱서부터 옷장까지 옷까지 다 털어봐가며 본대.
나만 없으면! 나는 우리 시어머니 방에 가서 이렇게 옷장 한번 열어본 일이 없어.
나는 30년 동안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도.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나만 없으면은 한마디로 덩장질 (뒤집)을 한대.
웬 집을 다 아주 난장판을 해놓는 거야.
혹시 내가 돈을 얻다 숨겨놨나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같으면 은행도 가까우니까 돈 있으면 얼른 은행에다 입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통장도 할 것 없이 카드만 가지고 다녀도 되잖아.

그 통장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없이 카드만 만들어 가지고 현금 카드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돈을 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저기 맡겨. 그렇다고 뭐 그 사람한테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나 이거 두 달만 보관했다가 나 좀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물건도 사야 되고 하는데 내가 돈을 빌려주니까 이렇게 맡아달라고 하니까 고맙지.

그래서 두 달 동안 실컷 쓰고 이제 두 달 후에 나를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좋고 그 사람은 그대로, 그대로 내 돈을 이용하니까 좋고

면담자 : 잠깐만, 그러면 그분한테 돈을 맡기신 이유가 뭐였어요?

구술자 : 내가 집에다 맡기면 우리 시어머니가 훔쳐 가니까.

면담자 : 가져가셨어요?

구술자 : 돈을 한 번은 월급을 탔는데 40만 원을 탔어, 우리 남편은 그때. 35만 원 월급 탈 때 나는 40만 원 월급 타서 월급 봉투하고 같이 서랍에다 넣어놨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다 뒤진다고 그랬잖아.

나만 오면 어마,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아들은 돈을 20만 원밖에 못 타고 30만 원밖에 못 타는데 이거는 돈을 이렇게 많이 타네.



그러고서는 그 돈을 훔쳐가신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훔쳐가도 훔쳐갔다 소리도 안 해. 그 애들이 '엄마, 할머니가 엄마 없을 때 방 다 뒤졌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 돈을 진짜 가져가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돈이 필요하시면 저보고 달라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제 돈을 가져가시면 제가 분실한 줄 알고 도둑이 들어온 줄 알고 걱정하잖아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번 돈 시엄마가 좀 쓰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며느리가 번 돈도 며느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번 돈인데 어머니가 마음대로 가져가시면 제가 돈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내가 돈을 틀어쥐고 다녔어. 그러면 옛날 쓰리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저기 롯데 백화점에서 그 백을 하나 어깨에다 매는. 하얀 가방.

아주 비싼 걸 샀어. 그거 거기에다, 가방에다 이제 돈을 월급 탄 거 하고 뭐 금융에서 해서 한 450을, 현찰을! 지금도 450은 적은 돈 아난데 옛날 450면은 진짜 850이면 32평 아파트 살 때야. 동양화학 아파트 장미 아파트가 32평이 850할 때야.

근데 400만 원을 내가 월급을 타니 큰 돈이잖아.

집 한 채값이 거의 되잖아. 그래서 그 돈을 가방에다 메고 오는데 쓰리를 당했네.

어머 그 돈 잃어버린 줄 알고. 아유 나 이거 가방이 찢어졌는데 나도 모르게 언제 찢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돈 잃어버려 나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랬더니 그걸 가방 자크(지퍼)에다 안 넣고 그걸 따로 돈을 넣어가지고 봉투에다가 노란 그 서류 봉투에다 넣어서 서류랑 같이 넣어서 서류 속에다 이렇게 해서 돈을 여기다 넣은 거야. 그러니까 못 빼간 거야.

면담자 : 가방은 찢었는데 종이가 막고 있었구나?

구술자 : 자크는 찢었어. 그 돈 넣는 이렇게 가방 안에 자크가 있잖아.

거기에다 돈을 넣잖아. 거기다 그랬는데 난 그날 거기다 넣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 서류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 속에다 넣어 가지고 가방을 메고 왔네.

딱 찢었는데 그거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혼비백산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면담자 2 : 남편분은 그러면 몇 년을 동양화학에서 근무하신 거예요?

구술자 : 글썄 몇 년 했나? 그거는 생각이 안 나네. 한 65세까지 했어요.

43세에 들어가서 65세까지.

면담자 : 아니네. 지난번에는 한 3~4년 근무했다고 하셨어요.

저한테 3~ 4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셨는데 아니네. 아니네요.

구술자 : 아니 3~ 4년이 아니지 30.

면담자 : 43세에 들어가서 몇세까지?

구술자 : 43세 들어가서 65세까지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2년 더 연장 근무를 했지. 거기서 그래서 67세까지 했어요.

거기서 연장 근무를 동양에서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67세까지, 67세까지 일한 사람은 우리 남편 하나더라고



면담자 2 : 24년을 일하신 거네요. 24년을 일하셨어요.

구술자 : 예. 그 동양화학에서. 이제 동양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영창산업이라고 저기 분과를 하나 만들었어요.

주유소 같은 거 거기 동양화학에서 좀 내려가면 주유소가 있었어.

그것도 동양화학 관할이었거든. 그래서 우리 남편을 그 주유소 저기 담당하라고 그 주유소로 보내줬지.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서 모든 기름값이니 뭐 나가는 돈이니 들어오는 입출금을 다 또 우리 남편이 거기서 담당을 했었지.

5. 아이들과의 추억 (00:31:01~00:52:31)

면담자 : 그럼 남편분 월급이 처음에 한 35만 원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보통 어느 정도 분배해서 쓰셨어요? 교육비는 얼마 정도 쓰시고?

구술자 : 이제 애들 대학교 학자금은 안 나오고 거기도 중고등학교 학자금은 나왔었어요.

면담자 : 100% 다 나왔어요?

구술자 : 중고등학교 학자금으로 나왔는데 그때 당시 우리 애들이 대학교 들어갈 연령이 안 됐고 중학교 다녔었어.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면서 그 학자금을 좀 몇 번 받아봤지 많이는 못 받고 그게 중간에 생겼어.

그것도 학자금 주는 것도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회사가 다 학자금을 준다 하니까 동양화학도 이제 죽게 생겨서 그래서 동양화학에서 이제 학자금 받아서 애들 가르치고 또 셔틀버스 이용해서 용인시장 신포시장 하루에 두 번씩 운행해서 오전 오후 그래서 시장 보러 다닐 때도 그 셔틀버스 다니고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참 좋았지.

그리고 여름이면 또 그 수영장이 있었어. 운영하는 수영장 송도에

면담자 : 새인천이에요. 아니면 송도 수영장?

구술자 : 저기 새인천 유원지 거기 동양화학 그 동네에 유원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마한 거기에 이제 수영장을 운영했거든. 그래서 애들이 거기 이제 무료로 가서 수영하고 놀았지. 집에서는 뭐 한 버스로 세 정거장이니까 애들이 걸어가고 그랬어. 거기에

면담자 : 저도 갔던 기억 나요. 저기 달려갔겠죠. 기억은 안 나고 말만 들었는데 저는 근처에서 한 두세 살까지 살고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가끔 송도 유원지나 새인천 풀장으로 갔죠.

구술자 : 거기가 이제 조개고개라고 그랬어. 조개고개. 조개고개에서 이렇게 걸어서 언덕으로 넘어가는 사원 아파트도 있고 그 사원 아파트 앞에 이제 수영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를 공짜로 수영을 하니까 옛날에는 송도 유원지로 갔었어.

송도 유원지는 굉장히 크고 좋잖아. 그런데 애들이 이제 거기로 안 가고 조그마한 데로 가니까 '엄마 우리도 송도유원지 한번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너무 좋다고 애들이 송도유원지는 모래 발판도 넓고 수영장도 넓고 그런데 새인천 유원지는 좀 협소하잖아.

그래서 협소해도 수영장은 수영장이니까 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고 애들이 수시로 거



기 가서 놀고 좋았어.

면담자 : 저도 이제 언니 오빠랑 동네 이렇게 모여 친구들과하고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 그렇지 근데 외부 애들은 못 들어가게 해요.

사원 아파트 수영장을, 그랬는데 이제 우리 저기 딸이 동양화학 다니는 그 집 딸하고 같은 동창이야. 그래서 이제 개하고 같이 갔었지. 외부 사람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그 수영장을!

면담자 : 몰래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의 저는 송도로 많이 갔던 것 같고 거기 좋았던 게 왜 뭐 돛자리 같은 거 펴놓고 음식도 해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거기랑...

구술자 : 가스 가져가서 청학 풀장하고 두 가운데

면담자 : 기억이 많이 나요.

구술자 : 참 옛날이네. 얘기하니까

참석자 2 : 그 사택에서 퇴직하실 때까지 사택에서 거주하셨어요?

구술자 : 아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 동양화학이 그 회사하고 사택을 다 부셔가지고 새로 건설을 했어요. 그 바람에 사택을 못 살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집을 사가지고 나갔지.

면담자 : 몇 년도쯤 되셨어요? 이사하신게?

구술자 : 몇 년 도인지 생각도 안 나.

면담자 2: 아이들. 아이들 몇 살때 즈음인지?

면담자 : 몇 살 때쯤인지?

구술자 : 그러니까 애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봐.

면담자 : 큰 자녀분하고 둘째 분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럼 사택에서 그닥 오래 사신 것도 아니네. 몇 년 못 사셨어요?

구술자 : 사택에서 오래 못 살았지.

면담자 : 왜냐하면 5학년 때 큰.

구술자 : 동양화학이 그 회사를 사택하고 동양화학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오래 못 살았지. 거기서

면담자 2 : 85년 86년 정도니까 사택에서 사신 게 아까 3~ 4년이라는 게

면담자 : 3~ 4년이 사택에서 사셨던 기간인가 보네요. 어머니가 보험회사 다녀서 저축 안 하셨으면 이사할 때 힘들셨겠다.

구술자 : 아유 못 살았지. 제가 보험회사 안 다녔으면 못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충청도 촌뜨기라고 사람들이 처음에 막 수근거리고 인천 사는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나를 깔보더라고 두고 보자.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두고 보자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수석 지부장까지 올라갔지.

그 수석 지부장은 아무나 안 시켜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험도 잘해야 되고 품행도 좋



아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보거든.
그런데 모든 조건이 나한테 적합하다고 이제 국장님이 추천을 한 거야.
나를! 그래서 국장님이 수석 지부장으로 나를 추천해서 됐지.

면담자 : 그럼 사시던 곳에 막 눈 많이 오고 그러면 도로 환경이나 집 근처 환경은 어땠어요?
구술자 :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눈 쓸었어요. 눈 오면은. 다 집집마다 이렇게 미는 게 있었어. 미는 거를 일부러 샀지. 철물점 가서 그래서 거기 이제 단독주택 이제 사택도 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 사원 아파트 아니고 단독주택에서 동양화학 단독주택에서 살았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하고 다 나와서 합세해서 그 동네를. 마을을 다 청소했어.
눈을 쓸었어.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도 왔다 갔다 놀아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학교 가는 큰 길 학익 초등학교 앞에까지 우리 심지어는 이 좁은 장미 아파트 도로 사이를 우리가 다 눈을 거기까지 치웠어.
왜 그러냐면 애들이 학교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그래 내 자식을 위해서 거기까지 막 눈을 쓸었지. 그래서 그때 당시가 그래도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눈 쓸고 막 발이 열고 손이 열고 그래도 그때가 재밌었어.
눈 치우고 그냥 서로 깔깔대고 웃고 눈 치우고 나면 한 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또 한 집에서 그냥 수제비 해서 먹고 그래도 그 동네가 훈훈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잘 지냈어.

6. 이웃과의 불화와 화해 (00:37:42 ~ 00:03:01)

면담자 : 물 쓰는 걸로 텃세 부리시던 분하고는 잘 푸셨어요?
구술자 : 풀었지. 당연히 아니 아까 얘기했나? 우리 애들이 놀러 갔는데 만두를 했는데 만두가 아니라 찐빵! 찐빵을 해가지고 아니 내 집에 놀러 왔으면 내 자식 주면은 애들 놀러 온 애도 줘야 되는 거지. 안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 사고 방식은 이해가 안 가. 사고 방식이 이해 안 가.
왜냐하면 내 집에 온 손님이잖아. 그러면 내 자식하고 노는 친구인데 어떻게 내 자식만 주고 그 친구는 안 줘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그 사람 하는 행동이 그래서 애들이 울며 왔어. 집에. 아니 너 영미네랑 놀러 가더니 왜 울며 왔어? 그러더라.
'엄마 만두 사줘!'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영미 엄마가 만두 해가지고 자기들 애들만 주고 우리는 안 줘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 집에 밥을 먹거나 무슨 음식 먹으면 막 뛰어오라고 그랬지. 내가 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남의 집 가서 밥도 먹지 말고 음식 먹을 때 쳐다보지 말고 빨리 집으로 와라.
그래서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라 그랬는데 애들이 지들 자식은 만들어 주면서 우리 애들 3남매는 안 준 거야.
그래 어린 삼남매가 7살, 9살, 12살 초등학교 5학년 까 12살인가 그것들이 무슨 철이 나요? 어린 것들인데, 7살짜리는 아기잖아. 그러는데 세상에 그것들을 두고 자기 자식만 줬대. 그래서 이걸 인간 이하구나. 이거 아니구나. 니들 아무리 동양화학 다니고 암만 인천 도외지서 살았다고 그래도 나 충청도 사람 무시하면 안 돼. 그러고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찐빵을 본래 잘 찐어요.
내가 처녀 때부터 우리가 이제 일꾼이 많았어. 7명이니까 일꾼들 간식을 주려면 엄마가 찐빵을 해서 줬어.



팔을 삶아서 찐빵을 해서 그 새참을 줬다고 그러면 일꾼들이 그렇게 좋아하면 또 그 집 자식 들하고 부인하고 일가족이 다 와. 그 남편이 우리 집에 일을 하면 그 일가족이 다 우리 집 와서 밥을 먹는 거야.

네 식구 다섯 식구가 그러니까 맨날 우리 엄마는 막 그냥 잔칫집 같았어.

그래서 그거 하는 걸 봐가지고 내가 찐빵을 쪄어. 팔을 삶아서 한 솥에서 이만한 그 양은 쟁반이 있었어. 옛날에 그 양은 쟁반에다 한 30개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한 30개 담아서 내가 그 집으로 갔어. ‘영미야!’

그래 부르니까 엄마가 나오더라고. ‘이거 내가 찐 건데, 한번 먹어봐.’

찐빵을, 나보다 두 살인가 3살이 어렸어, 그 사람이. ‘내가 찐 빵이니까 한번 먹어봐.’ 그래 갖고 쪄어. 그랬더니 ‘웬걸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그래서 ‘아, 음식을 해서 서로 노나(나누어) 먹는 게 정 아니야?’ 그 사람 들으라고

면담자 : 한 방 먹이셨네.

구술자 : 기분 좋게 먹었지. 음식을 해서 여럿이 같이 이웃끼리 노나(나누어) 먹어야 서로 정이 붙고 그게 서로 예의 아니야?

내가 그러면서 ‘내가 한 거니까 한번 먹어봐.’ 그러고 한 30개를 담아서 그 뒤부터는 음식을 하면은 우리 애들을 준대.

자기 자식 노나(나누어) 주고, 우리 애들도 주고 그렇게 버릇을 가르쳐서 너 내 새끼 왜 만두 안 주고 내 새끼만 줬냐 할 게 뭐있어. 그렇게 음식을 해서 주니까 자연스럽게 말 한마디 안 하고도 그 사람 버릇을 가리켰지.

면담자 : 그분도 이해를 딱 하신 거네. 근데 이렇게. 그런 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눈치 줘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막 눈치채시고 바로 또 잘 하셨네.

구술자 :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아니 그 사람이 궁금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고양시 자기 딸이 경기도 고양에서 사는데 딸이 데려갔거든 그랬더니 나주 요양원에 갔다는 얘기가 들려. 그래서 아니 딸이 데리고 갔는데 왜 요양원에 갔을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치매에 걸렸대. 치매가 걸리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은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 이상 행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도저히 모실 수가 없으니, 요양원에 모셨다 하더라고. 근데 요양원에도 찾아갈 수 없는 아주 아주 길도 험한 깊은 산골에 넣어서 병문 안도 못 갔어. 우리가 요양원 하면은 그래도 도외지.

면담자 : 가까이 있으면은 찾아보는 곳에.

구술자 : 동네에 보면 요양원이 있잖아. 그러는데 거기는 깊은 산골 고양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1시간 들어가는 그 요양원에다 택시를 한 번 타고 갔더니 만 7천 원 나왔어요.

택시 요금이! 그러니 또 갈 수가 있어. 한 번 가보고 다시는 안 갔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갈 수가 없더라고.

면담자 : 사택에 사실 때 이게 아무래도 동양화학이 냄새 같은 게 좀 나잖아요.

그런 환경은 괜찮으셨어요?

구술자 : 냄새나도 우리는 그 냄새를. 농약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어.

왜 그러냐면 동양에서 약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남편도 거기 가서 생계 유지를 하는 거 아



니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막 그 냄새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애들이고 우리고 그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어.

그래서 살았나 봐. 싫어하지 않았어. 거기서 나는데 그래서 이제 한불화학이라고 길 건너에 한불화학이라고 있었어요. 그래 대우전자가 나중에 들어왔지. 그 한불화학 없어지고.

근데 거기서는 진짜 심한 냄새가 막 바람 불면 우리 집으로 다 날아왔어.

그런데 그건 진짜 심하더라. 한불화학에서 나는 냄새는. 근데 동양화학에서는 석회, 석회를 만들었고 시멘트를 만들었지.

그렇게 약품을 주로 만드는 옥시크린 하나였어. 동양화학에서 옥시크린을 만들었어요.

근데 옥시크린 만들 때 그렇게 심한 냄새가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옥시크린을 대놓고 아주 실컷 썼지.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옥시크린은 아주 고급 세제라고 소문났을 때야.

그래서 비싸서 못 샀을 때인데 우리는 마음 놓고 막 거기서 박스로 갖다 줘서 마음 놓고 썼지. 옥시크린을!

면담자 : 마을 모습 같은 것도 생각하세요? 이사하시고 나서?

구술자 : 그 동네 마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택에서 살았으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되잖아. 그런데 그 마을 사람이 어제도 만났네. 그 사람을 어제 만났어!

그러는데 먼저 살던 사람이 시골 떼기라고 텃세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시골 떼기면 사람도 아니니!’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고서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집도 똑같이 음식을 하면 제 새끼만 주고 우리 애들은 안 준대. 사람들이 저질 한마디로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저질이더라고.

완전히 저질이야. 그래서 학부를 떠나서 사람의 인성 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친정엄마는 매일 먼저 인성 교육을 시켰어.

우리 친정엄마 아버지는 학부를 안 가르키고 인성 교육을 가르켰어.

그래서 이제 우리 큰오빠가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대전여고 국어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학교에서 인기 투표하라는데 우리 오빠가 1등 났대.

이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친구가 제물포 지금도 사는데 그 친구 손녀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전 내 학교를 대전여고으로 들어 간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 오빠야. 그러니까 또 이 아래윗집에서 살았으니까 우리는 여기고 길 건너 큰 길 건너 개네 집은 이 집이었고 서로 그 집에 수저가 몇 개 있는 것 까지 다 서로 양쪽 집에 아는 사이지. 그랬더니 어마 바로 동네 오빠가 지네 담임 선생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빠도 같은 값이면 공부 잘하고 품행 방정하고 그런 애를 반장을 시켜야 됐는데 딱 보니까 고향 사람이잖아.

더군다나 앞에 살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빠가 개를 반장을 시켰더라고.

그래가지고 개도 오빠 덕을 많이 보고 오빠도 개 반장을 시켜가지고 그거 여러모로 서로 도움이 됐지.

그래서 나중에 오빠가 시키는 대로 개는 너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떨어지니까 덕성여대를 들어가라. 그래서 덕성여대 시험 봐서 합격을 한 거야.

그래 덕성여대 나와가지고 저기 학교 선생님 노릇해. 개가 지금!

면담자 : 남편분이 동양화학 다니시는 동안에 회사에서 크게 사고가 난다거나 위험한 일이 있



였거나 한적은 없었어요?

구술자 : 사고 같은 거는 생각이 안 나. 없었던 것 같아. 사고 난 건 없었던 것 같아.

면담자 : 살고 계신 근처에 공장들이 이렇게 줄줄이 있었잖아요.

그런 곳에서도 전혀 큰 사고 난 적은 없었어요?

구술자 : 글썄 내 기억에는 모르는데 그 동네에서 그 나 시골 떼기라고 텃세했던 여자가 어제도 만났지만 그 여자가 이렇게 유명하게 텃세를 하더라고.

나 시골 떼기라고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뭐 내가 자량이 아니라 지식으로 보나 사는 그 생활 환경이나 나는 시골에서 처녀 때 엄마 아버지가 워낙 돈을 잘 버셨으니까 식모 두고 살았으니까 여유 있고 호강하며 살았잖아. 그런데 개는 아주 친절서부터 어려웠더라고. 어렵고 또 어머니도 또 서모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

그래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식모 두고 엄마 아버지한테 호강하며 살았으니까 더 나를 미워한 거야. 너무 지내하고 환경에 차이가 나니까

면담자 : 샘 냐나 보다.

구술자 : 샘 냐지! 샘 부렸지.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내가 저한테 잘하고 자식들한테 잘하니까 자연이 잘하니까 따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동네 사람이 욕하면 막 나서서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러지 말라고 나를 보호해 주더라고.

그 사람이 그랬는데 어제도 참 길에서 만났는데 반갑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잘났다고 너무 난체해도 안 되고 못났다고 너무 기죽어서 살 필요도 없어.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내가 남한테 피해 주지 않게 행동하고 남한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남한테 본이 되는 행동을 하며 살고 자식한테도 본이 되는 행동.

부모는 애들의 거울이라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거울이 되려면은 애들한테 진짜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3남매 키우면서 애들한테 잘못될까 봐 우리 남편이나 나나 많이 신경을 쓰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삼남매가 지금 다 잘 됐어. 아들은 아들 하나인데 삼성의 본사에서 외국 연수 가는 애들 우리 아들이 3개국어를 해.

그래가지고 외국 연수 가는 애들 연수시켜요. 연수팀에서 그러니까 월급을 연수시키는 월급은 또 별도로 더 받더라고. 삼성에서 막 그냥 대우받으며 다니고

면담자 : 남편분 다니실 때 회식 같은 거 하거나 집에서 이제 가족끼리 외식을 하거나 하실 때는 어디로 보통 가셨어요?

구술자 : 요새는 외식도 자주 했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외식 문화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신포동에 경양식집이 하나 있었어.

애들이 레스토랑 가서 먹는 게 소원이래. 근데 우리 형편에 레스토랑 가려면은 일반 식당의 몇 배를 더 줘야 돼. 그래서 애들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큰딸 중학교 졸업하는 날 이제 인천 여중을 나왔거든.

우리 딸이 신포동의 인천 여중을 지나서 신포동 시장에서 버스를 타야 우리 집에. 학익동에



오잖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레스토랑이 있어. 그래서 거기 삼남매를 데리고 레스토랑 가서 밥을 한 번 먹었더니 애들이 학교 가서 자랑을 한 거야.

우리 레스토랑가서 밥 먹고 왔다하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레스토랑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았어.

레스토랑 자체가 무슨 글자인지도 초등학교 애들이 영어를 알아, 식당 이름을 알아.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렇게 자랑하며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애들 키우면은 그런 데도 데리고 가야 되겠더라고.

면담자 : 저도 어릴 때 몇 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구술자 : 왜 그러냐면 애들하고 대화가 없어. 그런 데를 안 가면 대화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레스토랑도 데리고 가야 되고 영화 구경도 시켜줘야 되고, 그래야 되겠더라고.

7. 고된 시집살이 (00:51:32~01:03:34)

면담자 : 회사 체육대회 같은 거는 안 했어요? 야유회를 가거나?

구술자 : 체육대회 대회를 가거나 체육대회를 해도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가셨어.

우리 시어머니가 애고이스트야.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야 하는 자리도 부부 동반해서 가야 되는데도 우리 시어머니가 아들하고 가 그러면 나는 못 가는 거야.

그러면은 어디 여행을 가는 것도 우리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가고, 그런 체육대회도 며느리하고 가야 되는 거를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하고 가고, 저는 시어머니 계실 때 부부 동반해서 어디에 참가를 못 했어요. 시어머니가 다 하셨지.

면담자 : 시어머니는 언제 인천으로 오셨어요?

구술자 : 3개월 있다가. 자기는 고향 과수원을 못 팔겠대. 그러니까 과수원을 틀어쥐고 있어야 된대.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저는 과수원 못해요. 애들 교육 문제도 어렵고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 1시간 다니는 거리를 비나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외지 나가서 애들 학교 가르키지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어머니는 과수원 지키세요. 저는 그냥 빈 몸으로 나갈게요. 돈 5천 원 가지고 나왔어.

그때 5천 원이면 서울 오는 차비였어. 인천 오는 차비가 5천 원, 5천 원이었어요.

5천 원 조금 안 들었지,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애들하고 버스 타고 인천을 와가지고 인천에서 터를 잡고 살았지.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3개월 만에 쫓아 올라오셨어.

어머니 거기서 혼자 사신다는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너 없으니까 혼자 못 살겠대.

면담자 : 외로우시죠. 혼자 사시는게.

구술자 : 그런 데다가 거기가 유명하게 전설이 있어요. 그 집이. 우리 집이 이제 과수원 집이니까 굉장히 집이 아래채 안채 두 개였어.

아래채는 일꾼들이 살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일꾼들 내보내면서 우리 시누들이 올라와서 시누들이 아래채에 살고 안채는 우리가 살고 그랬는데, 밤이면은 그 옛날 창호지로 문을 했잖아



요. 그랬는데 그 창호지를 막 흔든대. 그래 뭐가 흔드느냐고 그랬더니 바람이 불면 창호지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래.

도깨비래! 도깨비래! 도깨비가 와서 방문을 막 흔들으면은 문풍지가 막 울린대.

어마 그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담대했어.

내가 키는 조그마한 게 우리 엄마가 그랬어. 저거 당차다고 그러셨거든.

키울 때 그랬는데, 내가 당차게 그걸 무서워 안 하고 애들 인천 우리 시어머니하고 우리 삼남매를 전학을 시켰어. 인천으로! 그리고 나 혼자 이제 아들 하나가 전학이 안 되는 거야.

6학년이라고... 6학년 때 전학이 안 된대. 그래서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가래.

그래서 중학교도 못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 내가 3개월 동안 졸업할 때까지 개를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인천에 송도중학교가 있었어요. 신포동에 송도중학교! 거기다 이제 입학은 시켰지.

그러니까 진짜 문풍지가 울리더라고. 도깨비가 모래 짹짹 끼었어 진짜.

진짜 진짜 나는 그거를 얘기만 들었지. 이거 느끼지 못했는데 짹짹 모래를 그 저기 창고지 문에다 뿌리면은 그게 짹짹 소리가 나. 우리 아들이 무섭다고 그러면 내가 이불을 뒤집어 씌워 주고 껴안고선 그냥 자고 그랬어.

아들 하나만 이제 중학교 저기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해야 인천 가니까 어떻게 내가 개를 데리고 있어야지

면담자 : 잠깐만 그러면은 남편분하고 어린 자녀 두 분은 인천에 와 있는 거고요?

구술자 : 우리 저기 딸 둘은. 저기 딸 둘하고 막내 아들. 그때 우리 큰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막내 아들하고 딸 둘은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인천으로 와서 사택에서 살고, 나는 큰아들이 이제 6학년이니까 전학이 안 된다고 그래서 2개월 동안 내가 데리고 있었지.

거기서 시골집에서! 전학이 안 된대. 6학년 졸업할 지가 이제 2개월 남았는데 졸업이 안 되. 저기 전학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년 남았으면 되는데 2개월밖에 안 남아서 전학이 안 된대.

면담자 : 졸업이니까.

구술자 : 그래서 학교 졸업하려면 2개월 남았는데 전학이 안 된다고 그래서 2개월 동안 내가 개 데리고 있었지, 그랬더니 진짜 짹짹 뿌려요.

그래도 나는 담대해서 안 무서웠어.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 거기 안 무서우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말을 않더라고.

나중에 그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도깨비가 모래를 창호지 문에다 뿌렸대.

그런데 그렇게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았냐고 날 보고 나 조그맣도 당차다고 동네 사람들이 보통 아니라고

면담자 : 그러면 2개월 동안 자녀분하고 지내다가 인천으로 오시면서 그 과수원은 처분된 거죠?

구술자 : 예예. 그러면서 이제 과수원을 내놔졌지. 인천 일은 이제 직장 우리 남편 되면서 내놔졌더니 그 덩어리가. 워낙 만 7천 평이니까 돈이 옛날에. 돈이 많이 나가잖아.

암만 시골 땅값이 싸도 만 7천 평이니까 그러니까 냉큼 누가 못 사더라고.

그런데 우리 과수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이제 그걸 못하니까 비워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남한테 임대를 준 거야.



면담자 : 집하고 과수원하고요.

구술자 : 집하고 과수원하고 임대를 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부 식구들이 그 과수원에서 살고 우리 시어머니 2개월 만에 인천에 오셨으니까 내가 모시고 그 집을. 다 집 하고 과수원을 그 사람들이 다 살았어.

그러다가 우리가 과수원을 내놓으니까 그 집이 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팔고 이제 우리는 인천에다 집을 사려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별 얘기도... 그 사기꾼을 만났어. 여자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돈 10월도 난 써보지도 못하고 과수원 판 돈을 1만 7천 평 과수원 판 돈을 10월도 못 써보고 그 여자 사기꾼한테 훌쩍 다 사기당한 거야. 아주 그냥 인천에 올라와서 신사복 내가 닥스 옷을 사줬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야. 남자가 그렇게 너무 비싼 거 사줄 필요가 없어.

응 그래서 내가 시골에서 피죤피죤하게 하고 다니면 창피하니까 저거 시골 떼기가 올라와서 옷도 피죤피죤 입고 다닌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그냥 수수하게 입어도 우리 남편은 신세계 백화점 가서 닥스를 사다 입혔어.

그러니까 멋있잖아. 닥스 옷이 좋잖아요.

면담자 : 이 그럼 사택이 선생님 덕하고.

구술자 : 운전기사하고 용접기사하고 세 집이 살았지.

면담자 : 새 집이서.

구술자 :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동양화학 아파트 사원은 저기 송도 유원지 거기에 새인천 유원지 거기에 아파트. 사원은 우리가 못 가고 그냥 동양 사택. 동양화학에 붙은 사택을 개인 주택 하나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집이 비어서 우리가 거기로 이사 갔지.

면담자 : 그럼 시어머님하고 부부하고 그때 자녀분이 그럼 세 명?

구술자 : 3남매. 하나는

면담자 : 집 구조상 다 살 만했어?

구술자 : 우리 시어머니가 안방 차지하고 애들 3남매 내가 데리고 갔지.

방이 2개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손녀딸만 좀 데리고 자라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 암만 내 자식이라도 아들하고 손녀 딸하고 한 방을 쓰는 게 안 좋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애들 손자를 데리고 자든지 손녀딸을 데리고 자든지 좀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누구랑 같이 못 잔대 안방은 컸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혼자 주무시는 거야. 애들도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3남매를 다 데리고 잔 거야. 한방에서

면담자 : 5명이서 한 방 쓰고, 시어머니는 혼자 쓰시고요?

구술자 : 남편은 젊잖아. 남편은 젊으니까 얼마나 꿀겼어.

애들 있는데도 주책을 펴 가지고 내가 애들 있는데 왜 이러느냐고 남자들은.

면담자 : 민망하셨구나.



구술자 : 애들 상관 안 해요. 그렇게 주접떨고 별 얘기 다 하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지.

내가 보험회사를 다녀가지고 왜 이렇게 잘 돼? 보험회사 가니까 우리 남편이 바람 난다고 못 가게 하는데 몰래 갔지.

면담자 : 나중에 되게 고마워하셨겠다!

구술자 : 아이고 나중에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더라고.

내가 자가용으로 하나 사줬거든. 사실은 내가 수금 다니려고 산 거야.

그랬는데 나는 운전을 배웠어도 운전을 못하니까 우리 남편을 이 자가용을 사줘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며 수금하고 다녔지. 그래서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 수금할 때마다 운전해서 태워다 주고

면담자 : 시어머니 언제까지 함께 사셨어요?

구술자 : 33년을 모셨는데 87세에 돌아가셨어. 우리 시어머니가 그때 당시 장수하셨어.

참석자 2 : 오래 사셨네요.

구술자 : 옛날에는 60만 되면 돌아가실 때야. 그때 당시.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87세에 돌아가셨었어.

면담자 : 그러면 이사 가신 아파트 여전히 시어머니가 안방 쓰시고?

구술자 : 안방 차지했지! 시어머니가. 우리는 항상 3남매 데리고 자고 시어머니는 안방 차지하고

면담자 : 그 아파트는 방이?

구술자 : 그러다가 나중에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거실에서 우리 아들은 자고 딸 둘은 이제 방이 3개니까 시어머니가 방 하나 차지하고 애들이 방 하나 차지하고 내가 방 하나 차지하고 거실에서는 우리 아들이 혼자 거실에서 자고 지금 생각하면 거실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그런데도 거실에서 짝소리 않고 우리 아들이 거기서 산 생각하면은 아주 지금도 내가 미안하고 얼마나 추웠을까 이 생각을 해.

지금은 거실도 따뜻하잖아. 보일러가 돌아서 그런데 옛날에는 거실은 보일러가 안 들어오고 방만 들어왔어.

그래 가지고 굉장히 춥다고 그런데 거기서 혼자 잔 생각하면 아주 내가 지금도 아주 미안하네. 가슴이 아파. 우리 아들 고생시킨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시어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자든지 손녀들을 데리고 자든지 하면 얼마나 좋아 자기는 누가 있으면 못 잔대. 그러가지고 혼자 주무셨어.

8. 은퇴 후 부동산 운영 (01:03:35~01:42:40)

면담자 : 남편분은 그러면 정년퇴직하시고는 다른 일은 특별히 또 이직 안 하시구요?

구술자 : 그렇죠. 부동산 했지! 부동산



면담자 : 부동산

구술자 : 부동산 했는데 또 남편이 또 홍보게 생겼네. 우리 남편이 손님이 오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볼펜을 쥐고 무슨 서류 작성해도 딱 놓고 손님이 오면은 상대방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동산이면은?

그래서 내가 옆에 콕콕 지르면서 '상대방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안 들어.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남편 서류 작성하는 거라 제가 좀 상대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 날 보고 '잘 아느냐'해. '저 남편이랑 똑같이 다녀서 잘 알아요.'

그 집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는 건 오히려 제가 더 잘 알 거예요.

방이 몇 개며 어디가 어떻게 된 거 다 구조도 아니까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일대일 상담을 했어요.

그전에 우리 시누가 이제 남편이 정년퇴직하고 보험. 저기 부동산 한단니까 우리 시누가 집 하나 구해달라고 자기 초등학교 교사인데 퇴직금을 받아서 '오빠 집 하나 사줘' 그러고 왔더라고.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내 동생 집을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면담자 : 그렇죠.

구술자 : 그러는데 동생 집은 구할 생각도 않고 맨날 무슨 그 서류를 이렇게 맨날 들여다보는지 몰라. 보면은 그 부동산하고 아무 해당 사항 없는 서류야.

컴퓨터 하는 방법. 그때 컴퓨터가 한참 처음에 유행할 땐데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 뭐 핸드폰, 핸드폰도 진짜 조그마한 요만한 거 뻘뻘 하다가 핸드폰이 나왔잖아.

그거 하는 방법! 그런 것만 들여다보지 부동산에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런 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누가 한 번 와서 이제 내가 손님하고 접대하는 걸 보더니 '언니 오빠하고 하지 마. 오빠는 오히려 손해 붙이는 사람이니까 언니 혼자 부동산 해.'

우리 시누가 오죽하면 그러더라고.

면담자 : 그럼 부동산은 같이 하신 거예요?

구술자 : 아니 부동산을 우리 남편이랑 하는데 나를 못 나오게 해.

나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를 다녔다고 그랬잖아.

나를 보험회사 다니는데 부동산을 못 오게 해. 여자가 오면은 안 된대.

우리 남편이 오히려 내가 산 집을 다 빚을 갚고 났는데, 어마 아파트 대출을 나 몰래 받았더라고. 명의를 내가 바보같이 내가 남편이 10원도 안 보탠 돈을 내가 내 명의로 해야 되는데 남편 기 살려준다고 두 사람으로 공동 명의로 했어.

그랬더니 나 몰래 갖다 2천 원을 대출받아서 또 사기꾼을 갖다 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아니다 진짜 남편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고 나한테 왜 계속 이렇게 늦게 죽는 날까지 나를 피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려니 때는 늦었지 뭐. 나이는 먹었지. 뭐 아무것도 뭐 돈 벌 리가 없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부동산에 우리 시누가 오더니 '언니 오빠한테 부동산을 맡기면 안 되겠어. 언니가 도맡아서 해야 돼요. 언니가 손님 끌지 오빠는 손님 한 명도 못 끌어.'

시누가 알더라고 벌써.

면담자 : 그러면은 보험회사 다니고 계실 때 부동산도.

구술자 : 보험회사는 이제 11시면 끝나니까 끝나면은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가 건수 있다고 오라고 전화하면 또 가고, 그러니까 수시로 부동산에 들어와서 내가 수시로 하면, 이상하게도 내가 오면 건수가 오네.

그래 가지고 건수하고. 건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고 형제들이 알지 그거를 오빠 혼자 있으면 한 건도 못 해. 3개월을 내가 그때 보험회사 교육받느라 3개월을 안 갔더니 한 건도 못하고 한 달에 70만 원 임대료도 못 내고 밀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임대료를 왜 밀렸냐고 그랬더니 한 건도 못 했다.

아니 어떻게 한 건도 못 하느냐고 그랬더니 뭐 맨날 앞드려서 이것만 쓰고 앉았고 사람 오면 얼굴 보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누가 그 집을 가냐고 그러니까 딴 집으로 다 가서 하지.

그래서 내가 가서 하면은 건수가 올라가고 나는 손님 오면 하던 일, 열일 제쳐놓고 상대방 딱 앞에 보고서는 그냥 자세 곧바로 그 사람 정면 보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할 맛이 나잖아.

그런데 아니 내가 지금 집 구하러 갔는데 내가 집 구하러 간 남자가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이러니 누가 얘기하고 싶어. 그 사람한테 집을 사고 싶어. 전세를 하고 싶어. 그러고 앉았으니. 그래서 우리 저기 시누가 와서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집을 하나 퇴직금으로 살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집을. 없대.

그래서 내가 남편 보고 그랬어. 아니 부동산에서 집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당신이 못하면 다른 부동산에다 연계를 해서 이 부동산이 사방에다 연락을 해서 부동산이다 서로 저기를 해야지. 그렇게 당신 혼자 하려면 되냐고 그랬더니 날 보고 그 사람 수수료도 줘야 하잖느냐고.

아니 앓는 것보다 둘이 노나(나누어) 먹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집 하나 하면 한 50만 원 받으면 25만 원씩 노나 (나누어) 가지면 벌써 그 돈 버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하기 싫대. 어마 남 주는 건 아까운 거야. 그렇다고 건수 못하는 게 더 손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누가 와서 보더니 언니 오빠한테 말하면 아무것도 안 돼.

언니가 보험회사 다니지 말고 부동산 차고 들어앉아서 언니가 해야 돼! 그러더니 시누 말이 맞아. 그래서 이제 시누가 ‘나 오빠한테 안 맡길 거야. 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가 서류 써주고 내가 할 테니까 그 3억 맡기라고 이제 퇴직금이 3억이 있어. 그래서 3억을 맡기더라고 시누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빠가 몰래 하래 날 보고

면담자 : 좋은 집 구해주셨어요?

구술자 : 아유 그럼! 좋은 집에서 그 새를 한 달에 150만 원씩 받게 해줬어.

그 저기 그 산 집이 한 달에 새가 방이 3개인데 50만 원씩 받아서 사글세가 그때 비쌌어요.

지금은 사글세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그때 50만 원씩 받았어.

그래서 방 3개를 안 살고 세 놓으니까 150 저기 그거 방 하나에 50만 원씩이니 150만 원씩 나오잖아.

50만 원씩이니까. 그래서 그거 150만 원씩 붙여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시누가. 그래가지고 뭐 있으면 저 고모. 저기 고모가 그러더라고 언니한테 맡겨야지. 오빠한테는 못 맡긴다고.

면담자 : 남편분은 그러면 직장을 다니실 때는 그런 거 모르신 거예요?

구술자 : 직장 다닐 때는 직장에 충실하느라고 하~나 [고개를 가로 저으시며]

면담자 : 오히려 직장생활에 최적화 되있는 거였네요.

구술자 : 참 아주 직장생활은 아주 잘했지. 아주 정확하게 뭐 대학교 나왔으니까 서울법대 나



왔으니까! 서무과장이니까 서류 같은 거 하는 거 계산하는 건 또 본래 우리 남편이 수학을 잘 했대.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계산하는 건 1등이지. 지금 계산기나 있지. 옛날에는 다... 다 손으로 이거 주판 굴러가면 손으로 다 했지. 뭐 핸드폰이 있어 계산기가 있어? 옛날에 주판 아니면 그냥 곱하기 더하기 다 볼펜으로 하고 말았지. 근데 지금은 참 좋은 세상이야.

면담자 : 너무 빨리 변해요.

구술자 : 계산기로 다 하는 세상이니깐 얼마나 좋냐고

면담자 : 사택에 사시다가 방 3개짜리 아파트 오래 사셨어요. 거기서?

구술자 : 그 아파트도 살다가 이제

면담자 : 이사 하셨어요?

구술자 : 한 10년 살았나 보네. 그 아파트. 장미 아파트에서 한 10년 살다가 이제 거기도 우리가 또 직장을 이동하는 바람에, 또 이사하게 됐어.

그래서 남강 로열 아파트를 샀지. 재개발된다고 그래가지고 신기촌에 남강 로열 아파트를 재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사 가지고 세를 줬지. 장미 아파트 살면서 우리는 세를 줬다가 거기 이제 장미 아파트가 헐고, 새로 아파트 짓는다고 다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 가지고 이제 로열 아파트 살다가. 지금까지 로열 아파트 살아요.

면담자 : 장미 아파트 아직 있지 않아요? 장미 아파트 헐었어요. 아직 있죠?

구술자 : 무산된다고 그랬는데 안 됐어. 그게 헐고 새로 짓는다고 그래서 이사를 왔는데 안 됐어. 재개발이 안 됐어. 왜 그리냐면 심사를 하니까 워낙 튼튼하게 지었어요.

벽돌로 빨간 벽돌로 짓고 내부도 기둥 하나 어디 저기 한 데 없고 지붕도 어디 새는 데 하나도 없고 너무 깨끗하니까 재개발 허가가 안 나온 거야.

어디 손 댈 데가 없는 재개발할 필요가 없잖아. 재건축 재개발이 다 무효가 돼버린 거야.

면담자 : 거기가 집도 튼튼하기도 하고요. 아마 용적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녹취문 내용을 세부 주제로 나눠 시간 기입

글씨체 : 함초롬바탕

글씨크기 : 세부주제-12pt(볼드체 적용) / 내용-10pt

줄간격 : 200%